

임단협 잠정 타결... 금호타이어 정상화 탄력

기본급 15% 인상, 상여금 200% 환원, 격려금 510만원 합의 임금인상 방식 공동조사위 꾸려 논의... 23~24일 찬반 투표

해를 넘겨가며 역대 최장기 교섭기록을 세운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4 임금단체교섭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지난해 말 5년간의 워크아웃 종료이라는 경사를 맞고도 기쁨을 나누지 못했던 금호타이어와 임단협 장기화를 우려했던 지역경제계도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올해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열린 35차 교섭에서 노사는 밤 9시까지 기본급 15% 인상(5%는 2014년 4월 1일 소급 적용), 상여금 200% 환원, 격려금 51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2014년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주요 쟁점인 임금인상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률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측이 제시한 '정액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수혜 혜택을 3차원에서 4차녀로,

건강검진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등 16개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단체 교섭이 장기간 지속되고 다음 단계교섭이 다가오면서 쟁점사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며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며 "회사가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했고 노조도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뤄진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정액제와 정률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엔 기존의 정률제를 적용하고, 2015년 임금협상에서 혼합해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합의안 마련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교섭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인상 방식과 정년연장, 도급화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앞으로 진행될 임금협상과정

에서는 난항도 예상된다. 특히 임금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호봉간 격차, 개인별 인상 격차 등이 얽혀 있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경제계는 환영 분위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호타이어 노사가 양보

와 타협으로 노사협상을 완만하게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종료와 함께 경영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조는 21~22일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23~24일 광주공장다국성·경기 평택 공장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

금타 노사 임단협 합의 윤장현 시장 중재 역할 컸다

금호타이어(주) 노사의 20일 전격적인 임단협 합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다각적인 역할과 정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극적인 타결에는 금호타이어 노사분규 사태를 지역경제의 최대 위기라고 판단해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윤 시장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현장을 두 차례나 찾아 노사 간 대화와 양보를 촉구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노조는 물론 최고 경영진에게 지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사태 해결에 노력해 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특히 윤 시장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출신인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을 타결 전까지 금호타이어 공장으로 매일 출근하게 하는 등 사태해결에 집중해 왔다.

윤 시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 시장은 성명에서 "노사 양측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하며 타협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응답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9년 연속 다보스 포럼 참석

한국 경제 '영 리더' 활동 中 광저우시 당서기 접견



스판덱스 공장과 무역법인 등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조 부사장은 22일 열리는 '인도네시아의 밤'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조 부사장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런웨이 중국 광저우시 당서기를 접견하고, 중국 사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논의할 예정이다. 런웨이 당서기는 광둥성에서 가장 젊은 상임위원으로, 중국 경제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효성은 현재 광둥성에서

지 재계 인사들과 사업 상담에 나선다. 조 부사장은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하는 차세대 글로벌리더(YGL)로 선정된 바 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유로존 위기와 지역별 지정화 갈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임동률기자exian@

우수 중기제품 소개 '일사천리' 대폭 확대 전남도·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전국 전파

중소기업중앙회의 '일사천리'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2012년 전남도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손잡고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홈&쇼핑의 TV 홈쇼핑에 지역 특화상품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국에 소개해 판로를 촉진하는 중소기업입점 프로젝트다.

지난해 14개 지자체 77개 상품을 방송한 일사천리 사업은 올해 경기도와 세종시까지 참여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으며 참여업체 규모도 전년 대비 20% 상향 조정, 100개사를 목표로 잡았다.

올해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무료방송 업체 규모를 확대한 것은 공익

적 측면에서의 홈&쇼핑 역할을 강화해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중기중앙회의 의지다. 2012년 9월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홈&쇼핑에 첫선을 보인 무안 '황토나라양과즙'은 첫 방송부터 매진행렬을 기록했으며 방송 4개월 만에 매출을 20% 이상 끌어올리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올해 일사천리 사업은 2월 중 업체 선정 등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062-955-9966).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신안·안좌농협 합병 확정

농가 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던 전남 신안군 신안농협과 안좌농협이 합병됐다. 21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신안농협과 안좌농협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병 찬반투표를 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가 찬성에 합방하기로 의결했다.

신안농협은 2350명 가운데 1499명

(63.79%)이 투표해 873명(58.24%)이 찬성했고, 안좌농협은 1148명 중 808명(70.38%)이 투표해 690명(85.40%)이 찬성했다.

두 농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합병과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1.23 (+2.92)
- ▲ 금리 (국고채 3년) 2.05% (+0.01)
- ▲ 코스닥 584.34 (+2.07)
- ▼ 환율 (USD) 1083.40원 (-5.00)

중기 청년인턴제 시행 산단공 호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현수)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1인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최대 390만원까지 일시불로 지원하게 된다.

참여 희망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kic5.kicox.or.kr)에 신청하거나 산단공(070-8895-7910)에 문의. /임동률기자exian@



"못 들어 갑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 금호고속 사무실 앞에서 금호고속 기존 직원들로 이뤄진 구사회원들과 사모펀드 측 관계자(오른쪽)가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공동대표 선임 반대

금호고속, 출근 저지 투쟁... 충돌

금호고속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가 최근 선임한 대표이사의 출근을 금호고속의 기존 직원들이 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21일 금호고속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0분께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가 선임한 김대진·박복섭 공동대표와 운영 20여명이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9층 금호고속 사무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의 직원 150여명은 문을 걸어 잠금 채 저항했고, 사무소 앞에서는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다. 이후 대치상황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측에 금호고속을 매각했다. 지난해 말 사모펀드 측이 시장에 내놓은 가운데 '고가 매각' 논란이 일면서 재인수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금호 측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사모펀드 측은 "금호그룹에 부여된 우선매수권은 정당한 입찰을 통해 인수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정당한 가격이 산정되면 해당 가격에 되사갈 수 있는 권

리인데, 금호 측이 매각절차 진행을 방해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이사는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항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됐다. 금호고속 임직원은 아직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사모펀드 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대표이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넷 27-36세</p>
---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차선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 모집 인원 ▶ 30명
-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입학상담문의 **GoChina** www.gochina.co.kr 233-9582 (총) 구오달리